

新平宋氏



성씨의 고향

(1)

新平宋氏의 시조인 宋丘進은 고려조에 봉의대부 서윤관정첩 습사도감 판관을 지냈다. 그의 선대는 여산송씨의 지파로 홍주의 신평에서 살다가 연산으로 옮겨 세거하였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계대를 가리지 못하고 그를 시조로, 선대의 원래 세가지인 新平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新平宋氏는 오늘날 전남의 영광, 담양 등지에서 별곡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始祖 구진의 6世孫인 老松 宋希環이 담양으로 이사하여 그 후손에서 많은 이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조에서 배출한 문과급제자는 10명이고 전체 송씨중에서 여산유진, 진천, 아산의 버금가는 숫자이고 대표적 인물로는 송영경, 송준, 송인환이 들 수 있다.

송희경(1) 태종때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세종 때 回禮使로 일본에 다녀온 뒤 송영경에 이르렀다.
孝憲公 송준(1) 성종

유명하다. 수경공 송준(1) 중종 때 문과에 급제 명종 때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유침찬에 이르러 기로수에 들어갔다. 만민은 가피를 즐

인도 사당을 지내고 해방 후 한복무늬의 단을 조직, 정본수업을 위해 활동하였다 비평의 간구 하 송준(1)가 유명하다. <묘사> 서원 영당 정려·행이문 기록표

宋氏는 周武帝이 微子를 宋에 봉하니 그 후손들이 나라이름을 姓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宋氏의 본관은 「송부후한비고」에 17곳이나 전해지고 있으나 여산(礪山)·은진(恩津)·진천(鎭川)·담양(南陽)·김해(金海)·덕산(德山)·무령(聞慶)·신평(新平)·아산(冶城)·양주(楊州)·연안(延安)·웅진(龍城)·철원(鐵原)·청주(淸州)·홍주(洪州) 등 20여 본관이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도 여산·은진·진천 등 세 宋氏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송씨는 거의가 여산이나 은진에서 분파되었다고 한다. 「宋氏上系世譜」에 의하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도지조는 唐의 호부상서 宋柱殿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연유로 귀화했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 그의 7세손인 宋舜恭의 후손 自英의 세아를 송만이 유인한 여산송씨, 둘째 천인은 은진송씨, 셋째 무인은 서산송씨의 시조가 되었고 나머지 송씨들은 여기에서 분파되었다고 한다. 그중 은진송씨는 중진세계가 실전되어 천의의 후손인 大原을 1세조로 하고 있으며, 여산송씨와는 큰집, 작의칭으로 통하고 서산송씨는 조선조에 현신교위를 지낸 而礪를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때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 때 진관도 관찰사, 이주, 별조판서를 지내고 판공부사, 지경연사에 이르렀던 명신으로 정철(1)에도 노선포(1)피, 영(1)피

거저어 읊었는데 江湖歌道の 선구자로서 황진이와 함께 시조문학의 정수를 계속하여 많은 명작을 남겼다.

▲삼가사—송영전담 장선근 삼계면 수우리 ▲구산서원—송희경 송준·송진·담양만 수부면.



금성면 원율리 신평 송씨 世葬山.